

캘리포니아주 6 월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발의안 비교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에 두 가지 발의안이 나와있는데요, 발의안 41 과 발의안 42 입니다.
참고로, 발의안이란 투표를 위해 대중에게 제출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41 은 퇴역군인 주택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인데요,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90 만 명의 퇴역군인 중 일부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단독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저소득 주민들이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나, 저소득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없습니다.

발의안 제 41 호가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면 이런일이 생깁니다:

저소득 또는 무주택 퇴역군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 건설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기 위해 6 억 달러의 주 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아파트 단지과 같은 저가 다세대 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는 향후 15 년간 6 억달러의 공채 원금과 약 1.5 억 달러의 이자를 상환해야할 것 입니다.

발의안 제 41 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발의안은 수천 명의 저소득 무주택 퇴역군인들에게 필요한 주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 41 호에 대한 반대 의견: 퇴역군인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주정부가 공채 발행과 관련된 추가 지출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42: 공공 기록물. 공개 회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현재 상황:

공공기록물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 문서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상환합니다. 또한, 브라운 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공 회의를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 42 호가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비용은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기록물법과 브라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포함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전체 지방정부에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책임은 각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지방정부들은 연간 비용이 평균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정부의 규모와 문서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의안 제 42 호에 대한 찬성 의견:

일반대중이 개인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 42 호에 대한 반대 의견:

주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이러한 법들을 지방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는 방법으로 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러한 법들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정부들에 지불해야 합니다.